

찬 송 가

◎ 384장(나의 갈길 다가도록)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하리라
2.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아멘)

◎ 559장(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설날가정예배(2019년)



- 신앙고백: 사도신경(다같이)
 - 찬 송: 384장(*또는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서)
 - 기 도: (가족 중에서)
 - 성 경: 야고보서 4:11-12
 - 설 교: 사랑과 은혜의 해!
 - 찬 송: 559장(*또는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서)
 - 주 기 도: 다같이
- *추모와 다짐: 어른들께서 자녀를 축복하거나 삶 나눔

한국기독교장로회 큰기쁨새생명교회

www.greatjoy.or.kr

은혜의 해!(4:11-12)

11.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 :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된 우리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입법자나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법자로 번역한 헬라어는 ‘노모데테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입법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서 하나님과 같이 심판자 노릇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도 때때로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비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적대적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먼저 육신의 가족은 매우 소중합니다. 서로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됩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난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까지 이르는 더욱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가족에게도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사랑이라고 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받는 모든 은혜는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할 때 진정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와 일상이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일 4:20)”고 말씀하십니다. 비방과 비판보다는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특히 겸손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나를 나보다 귀하게 여기며,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채워주고자 하는 배려와 위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육신의 가족으로, 또 믿음의 가족으로 부른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